

첫 발 댄 '지방분권' 인력·재정 등 과제 산적

광주시·전남도 TF팀 대응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앙정부 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재정지원 문제를 비롯,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 간 관계 재정립 등이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방정부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7기들어 지방분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손을 놓고 있다. 다만, 지방분권 방향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세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지역전문가·교수 등으로 지방분권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자치경찰 등과 관련해 논의해오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자치경찰 사무범위, 조직, 인력, 자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이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의견 수렴 방안을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정비를 검토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자치경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예산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 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추진협의회와 지방분권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앙 업무의 지방 이관에 앞서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 과정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재정 분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 그동안 각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예산 배정 비율을 산정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공동세 대신 지방교부금을 유지하는 한편 중앙정부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 증세를 검토 중이다.

부가가치세율이 11%에서 17%로 확대되면 4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이 가운데 광주는 1277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또 소득·법인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되면 13조1000억원(광주시 2646억원), 명목상 국세 이전 교육세 전액 지방세 전환의 경우 4조9000억원(광주시 1063억원) 등의 세수가 각 지방에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시도간 재정균형을 위해 재정력을 반영한 지방소득세 배분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력지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 100~500%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한 과제도 산적하다.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 등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조직 구성, 업무 분장, 인력 확보 등이 과제라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담양 관방제림 나무 아래 피서



지난 31일 담양 관방제림을 찾은 피서객들이 울창한 나무 숲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더위에 어딜가? 폭염 직격탄 맞은 여름 지역축제

강진 청자축제·고흥 우주축제 방문객 30~70% 줄어 '울상'

지역 여름축제가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다. 더위도 너무 더운 탓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상가부스를 철수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길 기대했던 지역민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31일 강진군과 고흥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축제가 지난 28일 개막해 오는 3일까지 7일간 열리고 있다. 또 전남도 유망축제로 지정된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난 28일부터 8월1일까지 5일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린 탓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가량이 줄었다. 강진군은 이날 "축제 개막 후 사흘간 4만

3000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명이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폭염 탓도 있지만 20년째 변하지 않은 진부한 프로그램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이 식상해 관광객이 재방문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객이 끊기면서 청자 판매 매출도 곤두박질했다. 지난해 3억원이었던 청자 판매 매출이 올해 1억6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5000원권 청자티켓 20억원 상당을 발행했던 것을 올해 중단하면서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축제장이 썰렁하자 일부 상인들은 부스를 철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자협동조합 관계자는 "축제장에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청자 매출이 급감했다"며 "살인적 폭염 탓도 컸지만 도자기업체들이 똑같은 상품을 복제해 내놓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우주항공축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8만1000명이 다녀갔던 이 축제에 올해는 지난 30일까지 사흘간 3만4000명이 발걸음을 했다. 앞으로 남은 축제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방문객은 5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40% 감소하는 셈이다.

반면 정남진장흥물축제에 참석한 프로그램과 더위 덕분에 대박이 났다. 지난 28일 펼쳐진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명이 넘는 구름인파가 몰리며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축제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층 젊어진 축제의 비결은 '워터 락 폴라티', '지상 최대 물싸움' 등 참여 위주의 축제 프로그램의 덕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특별 배려" 산자부에 검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인식비, 재해대책경정자금 지원 등이 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20일 연속 33도 넘는 폭염

1994년 기록 갈아치웠다

광주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날이 20일째 연속으로 이어져, 역대 최장(最長) 일수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1일 광주의 폭염일수(낮 최고기온 33도 이상)가 지난 12일부터 20일째 이어져 연속기록 기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역대 두 번째 기록은 19일 연속 폭염일수가 이어진 1994년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가 급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일보
 김철우 보성군수 민선 7기 구상
 -포용의 균형 꿈·희망 넘치는 보성 ▶11면
 전라도 1000년 인를 열전
 -시대의 의인 화순 흥남순 변호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6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톤),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